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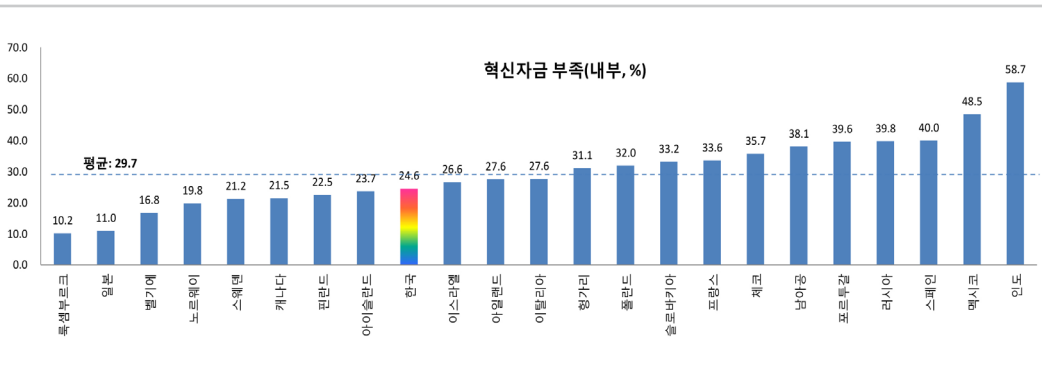
통계로 본 국별¹⁾ 글로벌 혁신 역량 (혁신 장애 부문)

1. 혁신의 장애 요인

1. 혁신 자금 부족 (내부)

- 자사 또는 소속그룹 등 내부로부터의 혁신을 위한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인도 기업의 58.7%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하여 혁신 자금 조달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룩셈부르크는 10.2%로 가장 우수
- 한국은 24.6%의 기업이 혁신을 위한 내부 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평균을 하회

그림 1 : 혁신 자금 부족 (내부)



자료: UNESCO(2015)

2. 혁신 자금 부족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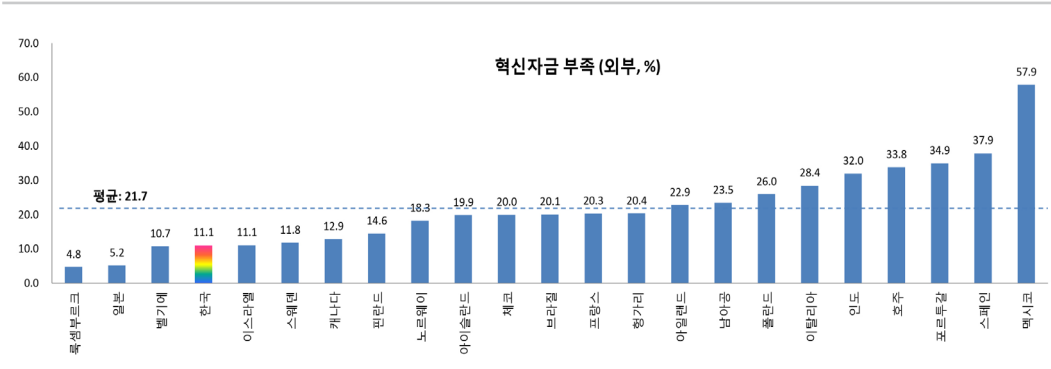
- 공공지원 또는 민간 투자 등을 통한 혁신 자금의 외부 조달 현황을 보면, 멕시코 기업의 57.9%가 애로를 겪고 있음. 룩셈부르크는 4.8%로 가장 우수한 환경으로 추정됨
- 한국은 11.1%의 기업만 혁신 자금의 외부조달이 부족하다고 응답

1) 비교대상 국가는 남아공, 노르웨이, 뉴질랜드, 러시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등 26개 국임

글 : 강희중 (kanghj@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동향 · 지표팀 팀장

그림 2 : 혁신 자금 부족(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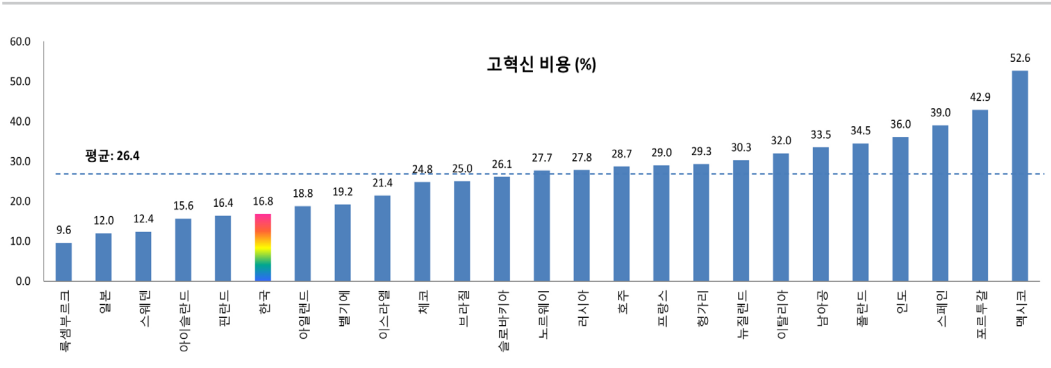


자료: UNESCO(2015)

3. 고혁신 비용

- 혁신 비용이 과다한지에 대하여 멕시코 기업의 52.6%가 과다한 것으로 느끼는 반면, 룩셈부르크 기업은 9.6%만 혁신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한국은 16.8% 기업이 혁신비용이 많다고 인식하여 전체 평균 26.4% 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3 : 고혁신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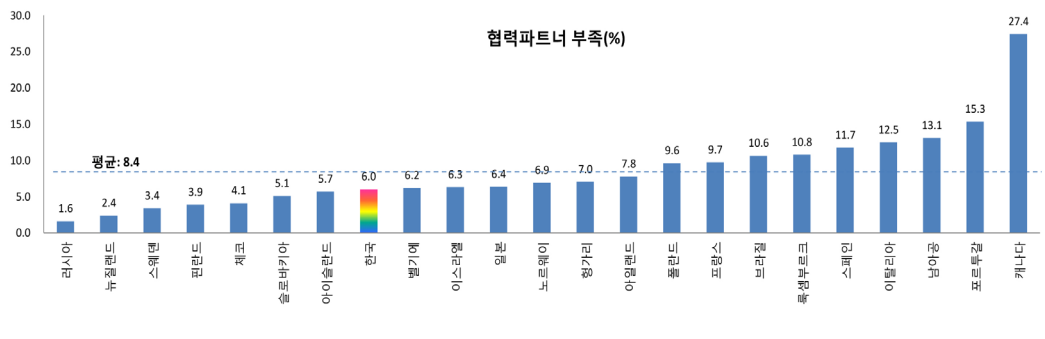


자료: UNESCO(2015)

4. 협력 파트너 부족

-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가 부족한가에 대해 캐나다 기업의 27.4%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러시아는 1.6%만 부족하다고 응답
 - 한국은 6.0%의 기업이 혁신을 위한 협력 파트너가 부족하다고 응답
 - 한국기업에서 협력 파트너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비교국 평균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나 타나는 이유 중에는 혁신을 위한 협력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4 : 협력 파트너 부족



자료: UNESCO(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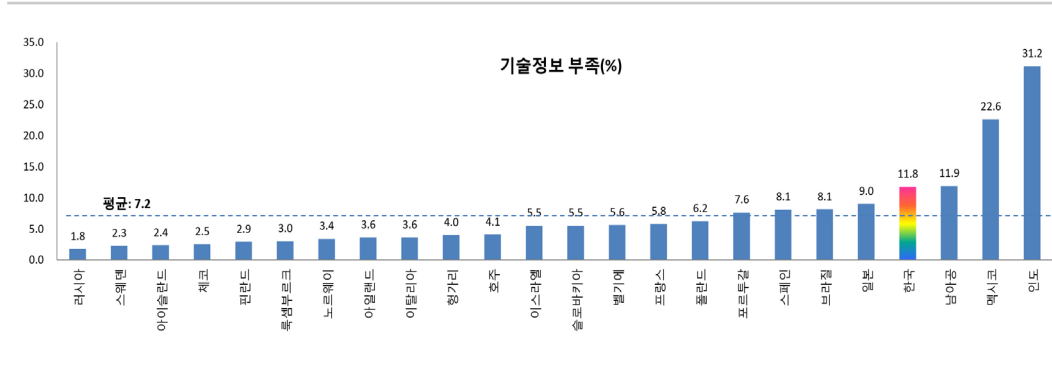
5. 기술 정보 부족

-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해서는 인도기업의 31.2%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러시아기업은 1.8%만 부족하다고 응답
 - 한국은 11.8%가 기술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 7.2%를 상회하고 있음

6. 혁신 우수 인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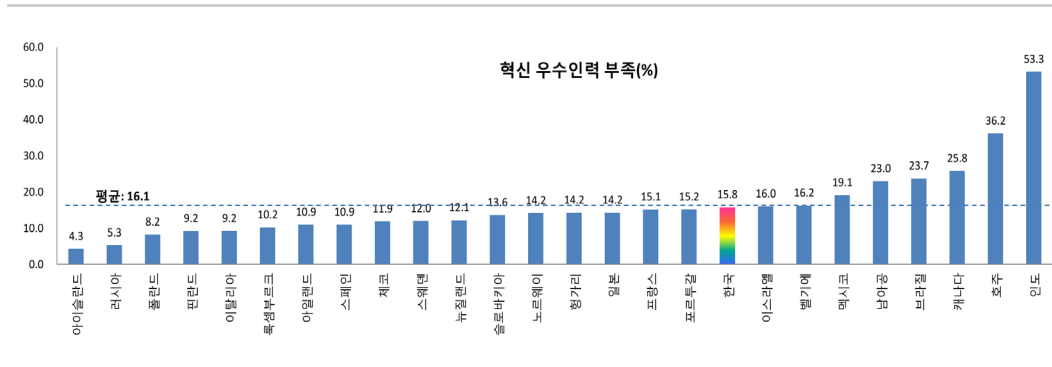
- 혁신을 위한 우수 인력이 부족한가? 에 대해 인도는 53.3% 기업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아이슬랜드는 4.3% 기업만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룸
 - 한국은 15.8% 기업이 혁신을 위한 우수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
- ※ 혁신 우수 인력의 부족은 인력의 수요와 공급 차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혁신 우수 인력의 절대수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그림 5 : 기술 정보 부족



자료: UNESCO(2015)

그림 6 : 혁신 우수 인력 부족



자료: UNESCO(2015)

II. 혁신의 장애 종합평가²⁾

○ 혁신의 장애 요인들을 자금, 인력, 기술 및 협력 차원에서 살펴 봄

- 혁신의 장애를 가장 적게 느끼는 것은 룩셈부르크 기업들이었으며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인도 기업들로 나타남

2) 산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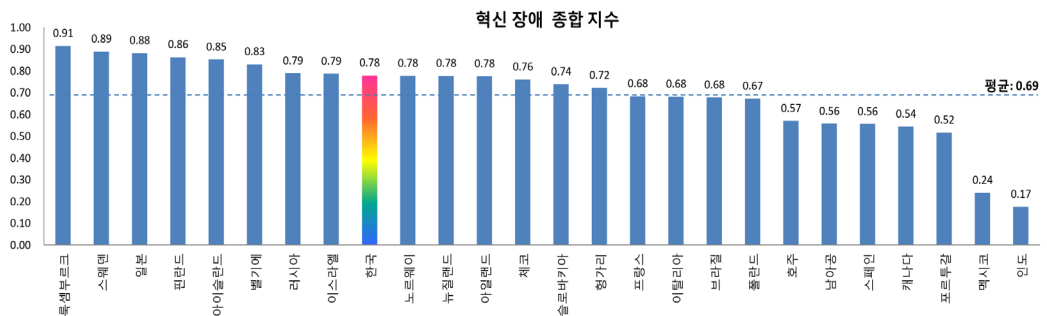
- 혁신자금 부족(내부, 외부), 고혁신 비용, 협력 파트너 부족, 기술 정보 부족, 혁신 우수 인력 부족 등 6개 지표를 대상으로 산출. 각 지표의 최대, 최소값을 사용하여 0~1로 정규화한 후 6개 지표의 평균으로 종합지수 산출

- 인도 기업은 내부로부터의 혁신자금 조달 부족, 기술정보 부족, 우수인력 부족 등에서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멕시코 기업은 혁신자금의 외부조달 및 고혁신 비용에서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자금, 인력 등 장애는 비교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반면, 기술정보의 부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혁신 장애 요인 지표를 종합한 지수로 보면 상대적으로 장애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그림 7 : 혁신 장애 종합 지수



주: 혁신 장애 종합 지수는 장애가 낮을수록 지수가 높게 산출되어 있음

III. 혁신 장애 측면의 시사점

○ 혁신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임

- 내부자금 부족이 29.7%, 고혁신 비용이 26.4%, 외부자금 부족이 21.7%로 세계 기업들의 가장 큰 혁신 장애는 자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혁신 우수인력 부족(16.1%), 그 다음은 협력 파트너 부족(8.4%) 및 기술정보 부족(7.2%) 순이었음

○ 한국 기업도 자금조달이 가장 큰 혁신 장애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혁신 우수인력 부족 및 기술정보 부족이 높은 혁신 장애로 나타남

- 한국 기업이 느끼는 혁신자금의 내부조달 부족은 비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24.6%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

- 기술정보의 부족은 11.8%로 절대치로는 낮은 수준이나 비교국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혁신 우수인력의 부족은 15.8%로 역시 절대치로는 높아 보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높은 수준임
- 혁신 장애들은 혁신의 역동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혁신 장애를 측정하고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각국 정부의 정책을 통해 구현되고 있음
- 기업혁신조사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책적 활동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UNESCO(2015), Summary Report of the 2013 UIS Innovation Data Collection